

엔교지 절의 유래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는 10 세에 처음으로 법화경을 공부했고 그 이후 불도에 몸을 바친 인물입니다. 36 세에 승려가 되었고 그 후 20 년간은 규슈에서 지냈습니다. 966 년, 신비한 구름이 쇼쿠 대사를 쇼샤잔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천녀가 벚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며 여의륜관음의 경문을 읊고 있었습니다. 쇼쿠 대사는 경문에 큰 영감을 받아 나무에 여의륜관음상을 조각했고, 그 상은 엔교지 절 마니텐(摩尼殿)의 본존이 되었습니다.

쇼쿠 대사는 귀족인 다치바나 집안에서 태어나 쇼샤잔 산에 입산한 뒤에는 고위 귀족인 후지와라 씨와 가잔 법황(968~1008)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가잔 법황은 10 세기 후반에 두 차례 쇼샤잔 산을 방문했고 엔교지라는 절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는 엔교지 절이 황실의 지원을 받는 조쿠간지(勅願寺)임을 의미하며, 특권과 경제적 이익이 보증되는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엔교지 절은 힘 있는 절로 성장하여 쇼쿠 대사가 입적한 뒤에도 계속 번영했습니다.

1177 년, 엔교지 절은 천황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고시라카와 법황을 영접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던 가운데 고시라카와 법황은 완성 뒤 200 년 동안 감실에 모셔져 있는 여의륜관음상을 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때 고시라카와 법황이 불교 가르침의 진수인 보옥(마니)의 이름을 따서 '마니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아가 1333 년에는 천황이 방문했습니다. 고다이오 천황(1288~1339)은 오키노시마 섬에서 유형 생활을 마치고 수도로 돌아오던 도중에 다이코도(大講堂)에 머물렀습니다.

엔교지 절은 긴 전국 시대(1467~1568)에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1578 년,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가 2 년 동안 쇼샤잔 산을 점령하고 경내를 산의 요새로 개조하여 2 만 명의 병사를 숙영시켰습니다. 이 점령 동안 승려와 사원 건물은 한가하고 난폭한 병사들의 손에 의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1603 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된 뒤 엔교지 절의 운명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히메지성의 성주 혼다 다다마사(1575~1631)는 1620 년에 엔교지 절을 방문하여 사원을 복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엔교지 절은 이 지역의 번주인 마쓰다이라 집안, 사카키바라 집안 등 역대 무가로부터도 비호를 받았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순례가 활발해지자 서민이 쇼샤잔 산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엔교지 절은 7 개 현에 걸쳐 1,0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순례길인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에 속해 있습니다. 33 성지를 전부 순례한 사람은 관음보살이 변화한 서른세 가지 모습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의 인기는 1,000 년이 넘는 풍요로운 역사와 전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지금도 엔교지 절로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습니다.